

아르데코 가구디자인의 근원적 조형세계*1

- 미술과 건축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

최병훈*2

The root of formative world with Art-Deco furniture design

- Focused on the mutual relation of fine art and architecture -

Byung-Hoon Choi

ABSTRACT

On the turning paradigm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change of behavior patterns naturally had influence on arts based it. Also the furniture designs was formed new style by interaction between paintings and sculptures and architectures. In this study, it was focused on Art-Deco movement that was started in 1920's France and was widely developed. Besides it was found out principles and characters of this style, and was made analysis and sense of the characteristic about formative language of Art-Deco on the relation with contemporary fine art and architecture.

As the result, the origin of Art-Deco is characterized by three categories : abstraction, mystery and symbolism. The Art-Deco furniture design symbolized by the desire to pursue both splendor and elegance is French style of pragmatism in progress toward Modern design.

*1 2000년 1월 10일 접수, Received January, 10, 2000

이 논문은 199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Departmen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121-791, Korea

1. 서 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20세기의 예술의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 시대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의 산물인 예술의 형성에 있어서 회화와 디자인, 건축은 서로 유리되기 보다는 오히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20세기초에 전개된 일련의 예술 사조들 역시 기존의 예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혁신적이고도 실험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였다. 회화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고와 표현형식에 대한 실험의 자유를 중시하였으며 건축과 장식미술에서는 양식의 속박에서 탈피하여 기능과 합리성을 통한 환경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형 예술 분야에서 심미성과 기능성이라는 양면성을 수용하고 있는 가구디자인의 디자인사적 체계를 동시대의 미술과 건축으로부터 공통분모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재예술의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가구 디자인의 원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가구 조형으로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적용과 시대적 필연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2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가 사라진 아르데코 양식에 주목하여, 그 양식의 원리와 특성을 유출함과 동시에 동시대의 미술과 건축조형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르데코의 독특한 조형 언어를 분석,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대 가구에서의 다원화된 표현 양상을 분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연구하고자 한다.

2. 20세기초 아방가르드의 궤적

한 시대의 양식은 그 시대가 안고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등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당대성(當代性)이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유럽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있었다. 우선 전쟁

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화려함과 우아함을 회구하는 경향, 즉 전쟁전의 풍요롭고 화려했던 시대를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의 고도성장을 수행하는 근대공업 사회의 환경 속에서 정신적인 불안정의 현상으로 격동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의 진보와 공업화로 인한 생활 환경의 변화는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술분야 역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여러 가지 실험들과 전위적인 운동들을 펼쳐 나간다. 특히 전쟁 전부터 그 기운이 싹 트기 시작한 기능주의 개념은 산업화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20세기초에 전개된 미술과 건축, 그리고 디자인을 포함한 조형예술분야의 공통된 흐름의 핵심은 과거 양식으로부터의 탈피와 함께 시대 상황에 입각한 실험 정신에 있다.

20세기초반의 회화는 '눈으로 본 그대로를 그려야 한다'는 단순한 요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게되어 여러 가지 실험과 도전을 모색하였다.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미술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의 인간의 감흥을 그리는 것이 진정한 미술이라는 이념 하에 기존의 모든 방식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욕구는 대상을 해체하거나 단순화하였으며 때로는 색면과 선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파격적인 실험성과 강렬한 도전의식,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은 입체파, 야수파, 미래파, 다다, 표현주의, 추상주의 등의 다양하고 전위적인 미술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건축에 있어서는 기술적 발전에 의한 구조적 혁신으로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원리가 요구되었다. 새로운 재료의 출현은 건축가들에게 구조적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갑작스러운 가능성에 부딪힌 건축가들은 오히려 디자인 과정에서의 수많은 선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어떤 이정표를 찾게 되었다. 이때 기능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슬로건과 함께 하나의 양식을 형성하게 되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새로운 디자인 원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건축의 역사나 전통에 연연하지 않고 건축이외의 분야에서 그 원리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리트벨트(Gerrit Thomas Gietveld, 1888~1964)가 신조형주의 회화에서 자신의 건축 디자인 원리를 찾아낸 것"이라든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가 큐비즘과 생물학적 구조방식을 그의 건축에 적용시킨 것이 그 예이다."

한편,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능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대중의 집단 소비를 위한 대량생산 기술의 급속한 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 전부터 이미 기능주의 이념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학파(The Glasgow Four)¹⁾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분리파, 그리고 1907년 독일 공작연맹의 계보를 이루며 그 심장부에 논리학파 기하학의 정신을 진작시켜가고 있었다. 이는 네덜란드의 데 스틸(De Stijl)과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아 당시 유행적인 곡선을 구사하며 장식적인 색채가 강한 아르누보의 영향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보다 단순화되고 대중화된 양식으로 아르데코가 전개된다.

아르데코라는 명칭이 그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40년 후 1960년대의 미술평론가들이 양식상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붙여준 이름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범위와 개념, 양식상의 특성들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1925년 파리에서 열린(현대 장식미술·산업미술 국제 박람회(L'Exposition International des Arts De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에서 절정에 다른 아르데코는 당시 서구문화의 현대성을 확립

하기 위한 갈등과 대립과정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²⁾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다양한 요소들³⁾이 서로 맞부딪치면서 형성된 절충적인 양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론이다. 이러한 아르데코 양식은 아르누보의 변증법적 발전형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시대상황과 프랑스의 민족성이 교묘하게 결합된 프랑스적 모더니즘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르데코 가구디자인과 미술 및 건축적 표현양상

아르데코 양식은 가구디자인을 비롯하여 회화, 패션, 영화, 보석, 도자기, 유리, 금속공예뿐만 아니라 건축, 운송기구, 제품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가구디자인의 경우는 아르데코의 조형적 특징들이 집약되어 완벽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내 장식이나 건축과 연관되어 아르데코의 근원적 조형세계를 이해하는데 손색이 없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3.1. 형태의 지각적 구성

아르데코 가구 디자인은 프랑스 18세기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원시미술과 이국적인 요소들, 입체파, 그리고 기능주의 이념과 진보된 과학기술을 반영하는 유선형 등의 두드러지는 원천을 갖는다. 이들은 각기 아르데코 가구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동시대의 미술 및 건축 조형의 형성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다.

- 1) 네덜란드의 건축가이며 가구디자이너,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근대디자인의 규범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Theo van Doesburg, Jacobus Oud, P.Mondrian 등과 함께 De Stijl 그룹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De Stijl의 조형 이론을 건축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슈레더(Schröder) 저택>과 <적, 청 의자>로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 2) 조인철, 「근대건축은 실패하였는가」, 도서출판 국제, P.23
- 3) Charles Rennie Mackintosh, Herbert McNair, Frances Macdonald, Margaret Macdonald 등으로 대표되는 '4인의 글래스고우 학파'는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간의 통일을 추구하였으며 미술공예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형태와 장식의 새롭고도 독창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그룹이다. 1900년 비엔나 초대전으로 오스트리아의 초기 모더니즘 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비인 공작연맹에 의해 재현된 기하학적 양식에 대한 영향력은 주목할 만 하다.
- 4) 동양미술 및 고대 이집트의 미술, 아프리카 원시 미술, 아즈텍과 마야 미술, 미국 인디언 미술 등, 수없이 많은 이국적인 문화들이 아르데코의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 5) 동시대의 입체파 회화를 비롯한 야수파, 러시아 구성주의, 미래파와 같은 미술사조들, 그리고 비엔나 분리파와 독일의 바우하우스, 당시의 기능주의 개념 등의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다.

3.1.1. 원시미술의 영향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로 인한 팽창주의의 영향은 1884년 이후 아프리카 분할로 이어졌다. 새로운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배하에 놓여졌으며 이를 계기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 미술이 유럽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다. 원시미술의 강렬한 표현성, 명쾌한 구성, 솔직 단순한 기법 등의 특징들은 동시대 예술가들을 사로잡았다.

피에르 르그랭(Pierre Legrain, 1889~1929)과 에일린 그레이(Eileen Gray, 1878~1976)를 비롯한 아르데코 가구디자이너들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원시미술을 그들의 디자인에 적용시켰다. 이집트의 왕이 사용하던 의자 모양이나 아프리카 부족들의 원시적인 의자들, 카누형태, 이국적인 동식물 등과 같은 다양한 원천들은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풍의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공간을 장식했다.(그림1) 왕 또는 추장의 의자 등 아프리카 부족의 원시적인 가구들은 당시 가구디자이너들에 의해 아르데코 양식으로 변형되었으며(그림2-5) 재료에 있어서도 마카사르 흑단이나 상아, 상어가죽과 같은 아프리카 산(産) 재료들이 유행하였다. 특히 피에르 르그랭은 이러한 아프리카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변형시키는데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가구디자이너로써 원시적 의자들에 현대적인 재료들과 아르데코의 조형요소들을 도입하여 격조있고 세련된 아르데코 가구를 디자인하였다.(그림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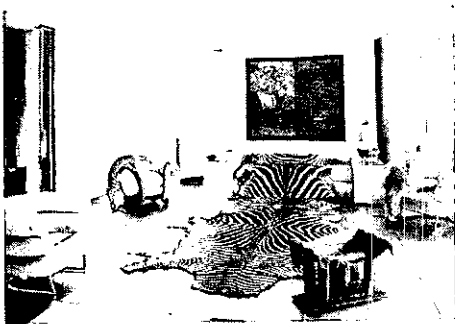


그림 1. 에일린 그레이, 수잔 탈보트를 위한 거실, 1933



그림 2. 다호메이족의 왕과 부인의 의자.



그림 3. 원시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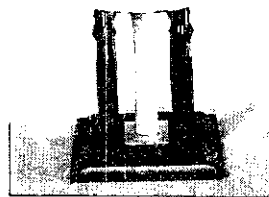


그림 4. 피에르 르그랭, 스톨,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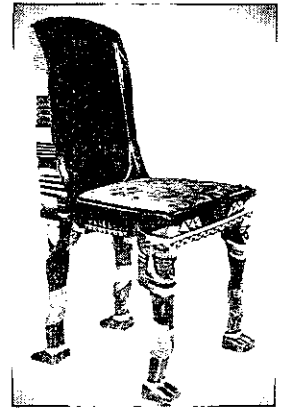


그림 5. 장 뒤낭, 옷칠한 의자,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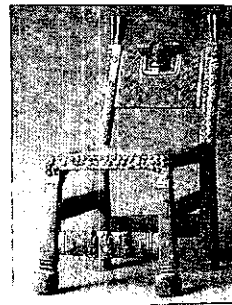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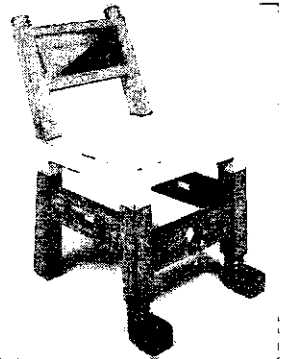


그림 6. Angola족의 원시 의자.
그림 7. 피에르 르그랭, 의자,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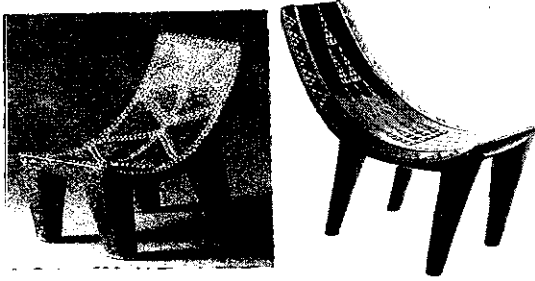


그림 8. Ngombe 부족의 원시의자
그림 9. 피에르 르그랭, 의자, 1923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원시 미술에서 보여지는 근원적인 조형요소들을 축출해서 현대적으로 구축화 한 작품들도 보여진다. 형태의 단순성과 원시적 데포르마송(deformation)으로부터의 영감은 아르데코 가구 디자인에서는 단순화와 볼륨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1925년 파리박람회에 출품한 앙드레 그롤(Andre Groult, 1884~1967)의 <Bombé>라 이름 붙여진 서랍장(그림10)의 볼륨감 있는 형태는 18세기 bombe chest의 변형으로 동시대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아 서랍장의 상판과 몸체, 그리고 다리 부분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마치 조각작품을 연상시킨다. 완벽한 좌우대칭의 구조 위에 단순화되고 우아하게 흐르는 선들은 간결하면서도 귀족적인 품위를 발산하고 있다. 이는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가 1916년에 제작한 대리석 조각품인 <Princess X>(그림11)와 같은 동시대 조각의 볼륨감있고 단순화 된 조형과 일치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실제로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절굿공이(그림12)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⁶⁾ 두개의 두드러진 가슴모양 위로 아치형으로 만든 머리와 목을 가진 간결한 형태의 이 조각은 그 후 브랑쿠시의 작품에서 극단으로 단순화되고, 절제된 볼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당시의 조각가들, 즉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 드랭(Andre Derain, 1880~1954),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 아르키펬코

(Alexandre Archipenko, 1887~1964) 등과 같은 조각가들은 원시미술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그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듯이 형태를 극도로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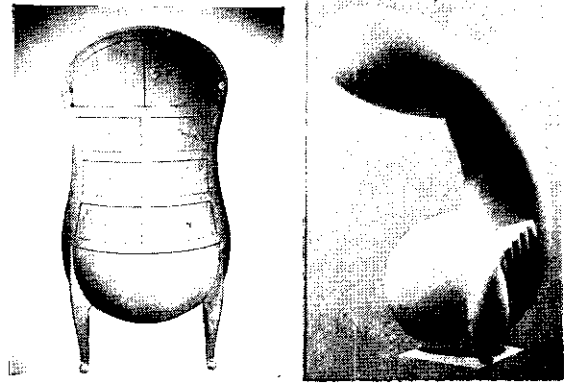


그림 10. 앙드레 그롤, 서랍장, 1925
그림 11. 브랑쿠시, <Princess X> 1916



그림 12. 절굿공이, Papua NewGuinea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등의 회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는데, 특히 피카소(Pablo Picasso, 1882~1975)를 비롯한 입체파에 끼친 원시미술의 영향은 강력한 생명력의 표출로 나타난다. 그의 <해변가를 달리는 두 여인>(그림13)과 같은 일련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단순화 된 여인의 무던 미숙함과 고의적인 어색함 역시 원시미술의 특

6) William Rubin, 「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94, P.354.

정들을 볼륨 있고 단순화된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그림 13. 파블로 피카소,
<해변가를 달리는 두 여인>, 1922

건축에 있어서 이러한 볼륨감은 좀 더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호화 여객선 노르망디호의 선내 인테리어로 알려진 가장 귀족적인 아르데코의 건축가 엑스페르(Roger-Henri Expert)가 파리의 퀴스街(la rue Kuss)에 만든 초등학교 겸 유치원(그림 14)을 보면 점점 후퇴시킨 반원형으로 된 건물 외관이 층수를 달리하면서 점층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마치 배를 연상시키며 볼륨을 강조한 이러한 조형은 피에르 빠투(Pierre Patout)가 디자인한 에밀 자크 롤만의 <수집가의 관>(그림 15)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전의 아르누보 시대의 건축조형과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기적인 곡선과 비대칭적인 구조로 특징 지워지는 아르누보의 장식들과 형태로부터 볼륨을 강조하며 단순화되고 절제된 기하학적 형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림 14. 엑스페르, 초등학교 겸 유치원, 1934, Paris.



그림 15. 에밀 자크 롤만의 수집가의 관, 1925년
파리박람회.

3.1.2. 입체주의와 형태의 구성

“...현재의 아르데코로 알려진 양식은 본질에 있어서 큐비즘을 교화시킨 것이다. 즉, 아르데코는 대중소비를 목적으로 순화(純化)된 큐비즘이었다. ...”⁷⁾ 입체파의 여러 요소들이 아르데코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가구를 비롯한 장식미술과 건축, 조각에 있어서 입체파(Cubism)의 영향력은 표면의 장식 패턴에서부터 형태의 구성방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공간 및 원근법, 캔버스의 2차원성에 환원된 양감에 대해 화가들이 오랜 기간 탐구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단계인 입체파는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대상물을 기하학적인 파편으로 대치하여 본래 그것이 가지고 있던 의미보다는 작가를 통해 변화된 구성체계로 발전시켰다. 1907년 여름, 피카소가 트로카데로(Trocadéro)에 있는 인류박물관에서 원시미술의 강렬한 미술적인 힘에 자극을 받아 완성하게 된 <아비뇰의 아가씨들>(그림 16)들은 입체파의 계시적인 작품으로 마치 깨어진 유리조각이 버려져있는 것과 같이 인물과 배경은 모가 난 췌기 모양, 또는 다각형의 작은 면들로 해체되어 있다. 심하게 왜곡된 얼굴과 몸체는 자연세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왜곡, 뾰족한 모서리, 기하학적인 배치 등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들은 브랑쿠시를 비롯한 동시대

7) 베비스 힐리어, 조규화 역 「1900~1980, 20세기 양식」, 서울, 수학사, 1993. P.86

의 조각가 로랑스(Henri Laurens, 1885~1954), 아르키펜코(Alexandre Archipenko, 1887~1964), 뒤샹-비용(Duchamp-Villon, 1876~1918) 등에 의해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동시대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 그리고 체코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이 운동에 가담하게 한다.



그림 16. 피카소, 아비뇰의 아가씨들, 1907

입체파 등으로부터 받은 피에르 르그랭의 영향은 모딜리아니, 피카소, 그리고 브라크 등에 의해 힘찬 각의 변화와 점진적인 형태의 창조를 위한 3차원 개념이 화면에 그려지던 시기로부터 시작되었다.⁸⁾ 1924년에 제작된 코너용 책장(그림17)은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듯한 면의 구성과 형태를 하고 있으며 수탉의 이미지를 단순화한 브랑쿠시의 작품(그림18)을 연상시킨다. 이는 작은 면의 구성에 의한 파세트 입체주의의 영향과 원시조각의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1920년대에 발표된 일련의 그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영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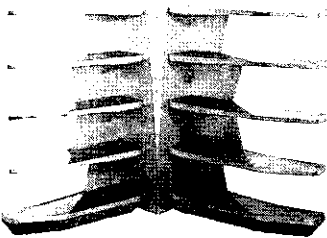


그림 17. 피에르 르그랭, 책장,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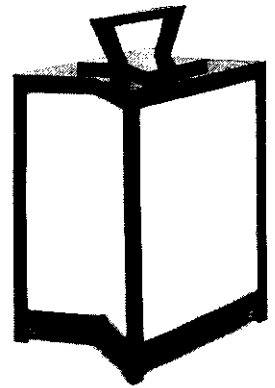


그림 18. 브랑쿠시, 수탉, 1924
그림 19. 피에르 르그랭, Lantern, 1920.

이 외에도 입체주의의 형태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방식들이 아르데코 가구형태에 적용된 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에르 샤로(Pierre Chareau, 1883~1950)의 책상(그림20)은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책상은 각 부분들을 분리시켜 입체적인 형태로 환원한 다음 다시 조합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1907년 조르주 브라크(George Braque, 1882~1963)가 그린 세잔느 풍의 엄격한 구성에 의한 대담한 풍경화 <에스타크의 풍경>(그림21)에서 보여지는 특징들, 즉 풍경, 인물, 집 등 모든 것을 기하학적 도식, 입방체로 환원하고 있는 입체주의의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들을 점층적으로 연결되는 면들의 구성, 형태를 각면으로 분할하여 표현하는 방법들로 가구에서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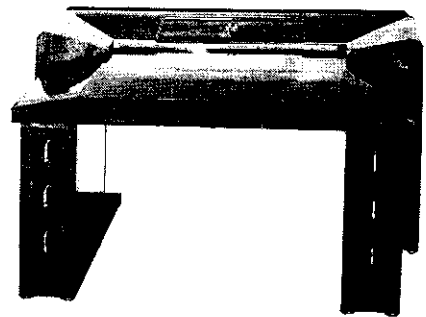


그림 20. 피에르 샤로, 책상, 1925.

8) Alastair Duncan, 「ART DECO」, Thames and Hudson, London, 1988. P.32



그림 21. 조르쥬 브라크, 에스타크의 풍경, 1907.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입체주의 회화를 전개시킨 스페인 출신의 화가 후앙그리(1887~1927)는 자, 삼각자, 측정기와 같은 제도기에 의한 드로잉을 통해 입체주의 회화의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그의 그림(그림22)을 통해 표현된 날카롭고 뾰족한 면들의 구성은 샤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1903~)의 날카롭고 차가운 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테이블(그림23)과 같은 가구들의 조형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장 샤를르 모뤼(Jean Charles Moreux)가 디자인한 테이블(그림24)에서는 모서리 부분의 잘려나간 듯한 삼각형의 단면과 다리부분의 계단식 장식과 같은 입체주의로부터 들여온 요소들을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1930년 뉴욕에 세워진 크라이슬러 빌딩(그림25)의 조형과 연결된다. 아르데코

건축을 대표하는 이 빌딩은 꼭대기 부분에 붙여진 바텍스라 불리는 첨탑(尖塔), 스테인레스의 크라운에 붙여진 예각삼각형을 한 작은 창문들 등을 중층적 반복에 의해 배치시킴으로서 입체주의 회화의 요소들을 아르데코의 형태적 특징으로 분출시키고 있다. 체코 큐비즘⁹⁾의 대표작으로 요제프 호홀(Josef Chochol, 1880~1945)의 <야로슈 빌라>(그림27)와 <뷔시프라트(Vyschrad) 98번의 집 합주택>(그림27)은 입체주의자들이 도입한 분석적 방법을 건축에 그대로 적용한 예이며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나 공간의 무게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방법은 종래의 장식을 일단 기하학적인 작은 평면으로 분해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순수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의 일반적인 관계로부터 새롭게 인출된 형태를 만드는 입체주의는 아르데코 가구 및 건축 조형의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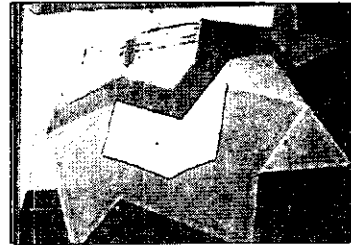


그림 22. 후앙 그리, 달콤한 음악과 기타, 1926

9) 프랑스 입체파 회화에서 유래한 조형적 영감과 19세기 이후 배양된 기술이론이라는 두가지 원천을 훌륭하게 융합시켜 발전시킨 체코 큐비즘은 곡선의 추상화 보다는 사선을 추구한 다분히 북방적이고 광물 결정체적인 조형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특징은 건물의 벽을 비스듬히 달리는 선이나 삼각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건축면들, 지그재그 선들로 구성된 의자의 등받이 등에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자연이나 실제의 현상을 기하학화, 추상화함으로써 순수한 창작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1920년대 아르 데코의 광물 결정체와 같은 장식 디자인과 본질적으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전개된 체코 큐비즘 건축은 극적이며 동적인 구성과 사선을 이용한 조형이 많았으며 건축과 가구에 있어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프라하를 중심으로 발전한 체코 큐비즘의 디자인적 선구성은 모던 디자인의 전개의 측면에서 볼때 독일의 표현주의나 데 스틸에 뒤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모던 디자인의 역사적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철의 장막 맞은편에 숨겨져 버림으로서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체코 큐비즘은 오토 와그너가 아끼는 제자 중 한 사람인 안 코체라가 프라하에 유겐트 스틸을 들여 옴으로서 그 싹이 트게 된다. 한편 코체라에게 직접 배워 새로운 디자인에 눈 뜬 고차르(Josef Gocar), 호호르(J. Chochol), 노보트니(O. Novotny), 포에르슈타인 등의 프라하 청년 건축가들은 스승의 유겐트 스틸을 초월하고자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데, 그것이 체코 큐비즘이다. 이와 같이 체코 큐비즘은 중요한 디자인사(史)적 의미를 가지지만, 생명력은 지극히 짧았다. 1912년 고차르의 <검은 성모의 집>을 출발점으로 시작되어 바로 이듬해 절정기를 맞이하고 건축뿐 아니라 공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만들어 지지만 2,3년후 쇠퇴기에 들어가 1922년의 노보트니가 설계한 <123번의 집합주택>을 최후로 끝이 나게 된다. 이 후 마름모폴, 원기둥, 원형, 반원형 등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이 나타나는 룬드 큐비즘으로 연결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요제프 고차르(Josef Gocar, 1880~1945), 요제프 호호르(Josef Chochol, 1880~1956), 블라스티슬라프 호프만(Vlastislav Hofman, 1884~1964) 등이 있으며 큐비즘 건축과 가구를 함께 디자인 한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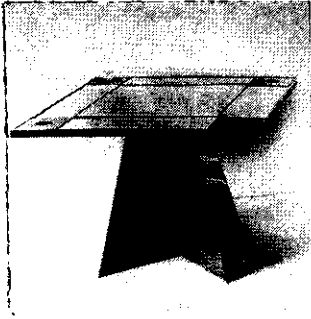


그림 23. 샤를로트 페리앙, 카드 테이블,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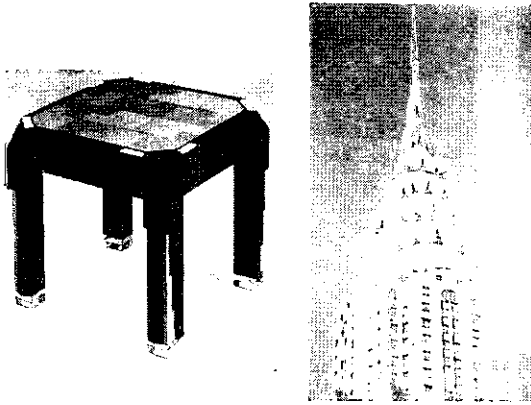


그림 24. 장 샤를르 모뤼, 테이블, 1923.

그림 25. 윌리엄 반 엘렌, 크라이슬러 빌딩, 맨하탄, 1930



그림 26. Josef Chochol, 야로슈 빌라,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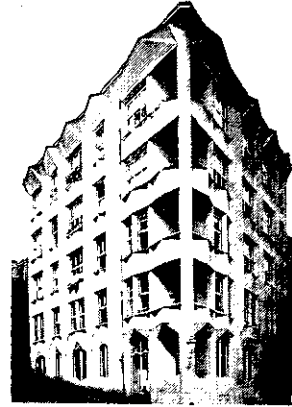


그림 27. Josef Chochol, Apartment House, 1913

3.2. 장식의 미학적 표현

아르데코 가구의 장식성은 아르누보에 비해 절제되고 단순화된 형상으로 표현되었으나, 소재와 기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다양화되고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가구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형태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 새로운 미술사조들의 등장, 외래문명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반영하고 있다.

3.2.1. 추상미술과 기하학적 표현

고대문명의 기호와 문양, 아프리카 미술의 단순하고 반복화 된 패턴들은 추상미술과 함께 아르데코 가구를 장식하는 주된 모티브를 제공했다. 원시미술에서 보여지는 기호들, 자연이나 실재상황들을 기하학화, 추상화함으로써 순수한 조형언어를 발견하여 장식적으로 상징화하는 경향은 가구 디자인뿐만 아니라 동시대 회화와 건축에서도 나타난 동일한 현상이었다.

아르데코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 에밀 자크 룰만(Emile-Jacques Ruhlmann)이 디자인한 안락의자(그림28)를 장식하고 있는 단순화된 동실원의 패턴은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가면에 등장하는 동심원을 연상시킨다.(그림30.31) 또한 에티엔느 콜만(Etienne Kohlmann)이 디자인한 캐비닛(그림29)의 전면을 장식한 기하학적인 문양은 고대문명의 상징문자를 응용한 것으로 원시미술의 기호들과 상

정성으로부터의 영향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동시대의 추상주의 화가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의 작품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그림30) 아프리카 부족 미술에 나타난 기호들을 가지고 그만의 회화언어를 표출하였던 파울 클레는 기호, 문자와 같은 요소들을 이용하여 회화에 새로운 차원의 예술성을 부여하였으며 갖가지 관념을 형상화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추상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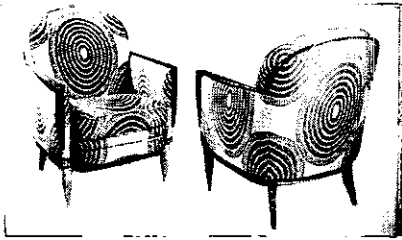


그림 28. 에밀 자크 룰만,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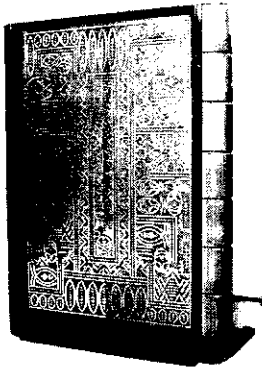


그림 29. 에틴느 콜만, 캐비닛, 1930



그림 30. 중앙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가면



그림 31. 파푸아뉴기니아의 조각된 조개껍질



그림 32. 파울 클레, <Picture Album>, 1937

이 외에도 입체주의와 당시의 기계미적인 표현 양상의 영향에 의한 패턴들이 가구를 장식하게 되는데 뾰족한 삼각형 모티브, 태양의 광선, 전파를 나타내는 지그재그 무늬, 폭발하는 별, 계단형태 등의 메카닉한 패턴들과 빠른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유선형의 장식들이 그것이다. 루이 마조렐르(Louis Majorelle, 1859~1926)의 캐비닛(그림 33) 장식은 햇살 문양을 양식화하여 속도감 있게 나타낸 것으로 1925년 파리박람회에 참가한 메트리즈(La Maitrise) 백화점의 갤러리 라파이에뜨(Galeries Lafayette) 관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외관을 장식하기도 하였다.(그림34) 이 외에도 아르테코 시대의 포스터나 도자기, 북 커버 디자인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사선, 곡선으로 표현된 구성은 극적이며 동적인 느낌을 포착해내고 있다.(그림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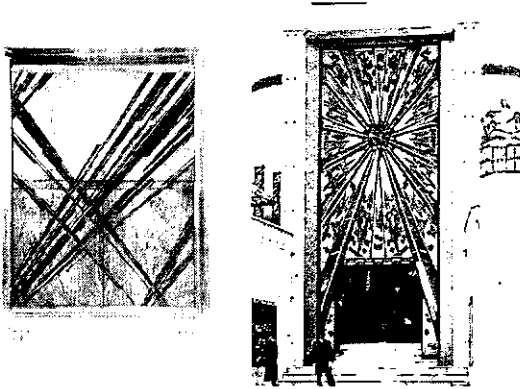


그림 33. Louis Majorelle,, 캐비닛

그림 34. J.Hiriart, 갤러리 라파이에뜨관, 1925년 파리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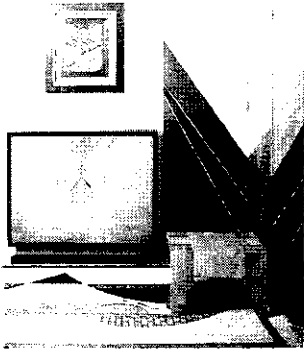


그림 35. Leon Albert Jallot, 래커칠 한 가구들, 1924.

1920년대 후반 미국으로 전파된 아르데코 건축 양식에서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모티브들이 더욱 화려하고 웅대하게 전개된다. 크라이슬러 빌딩의 엘리베이터 디자인에 응용된 햇살문양, 미로문양, 갈매기 문양, 부채문양 등은 전형적인 아르데코의 문양으로 고급 목재 베니어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부각시켰으며, 입구에는 지그재그 문양과 날카로운 갈매기문양을 스테인레스로 장식하고 있다.(그림 36) 이 외에도 천장이나 바닥장식에서 테라조로 원이나 선, 계단모양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조합한 패턴들은 자주 보여진다.(그림 37) 이러한 아르데코 건축의 장식성은 당시의 도시적 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대모더니즘의 기능적인 면과 함께 절충되면서 아르데코 건축 특유의 독창성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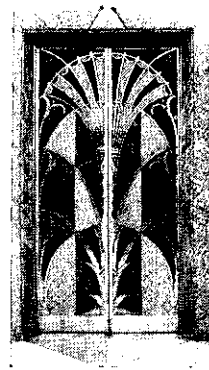


그림 36 크라이슬러 빌딩의 엘리베이터문, 1930

그림 37. 크라이슬러 빌딩, 엘리베이터의 천장 인테리어, 1930



3.2.2. 자연모티브의 단순화

아르데코 가구에 나타난 양식화된 인물, 식물, 이국적 동물들과 같은 자연적 모티브는 비(非)문명 세계의 자연을 생활 속에 도입하려는 양상을 띤다. 아르데코가 성행하기 이전 즉, 20세기 이전에 이국 세계에 대한 관심은 기묘한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는 20세기초에 들어오면서 식민지 문화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고무시켰다. 힘차고 정열적인 인간의 모습, 처녀의 누드, 신비하고 낭만적인 동물, 사슴의 무리, 정글의 풍경 등의 다양한 자연적인 소재들은 아르데코 가구를 더욱 우아하고 신비롭게 장식하였으며 고전적인 모티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것과는 차별화 된 형상으로 나타났다. 즉, 더욱더 단순화되고 상징화된 모습으로 가구의 표면을 장식했으며 당시의 이국적 취미를 반영함과 동시에 신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에밀 자크 룰만(Emile-Jacques Ruhlmann)이 1905년에 디자인한 흑단 캐비닛(그림 38)의 상아로 정교하게 상감 세공한 이국적인 비름꽃 장식은 전형적인 아르데코의 장식성을 띄고 있는데, 이전의 아르누보의 식물장식과는 다른 정돈화되고 좌우 대칭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과일바구니와 꽃 모티브를 주제로 작업했던 가구디자이너 폴 폴로(Paul Follot, 1877~1941)는 이러한 식물 모티브를 단순화 시켜서 양각으로 조각하여 장식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기도 하였다.(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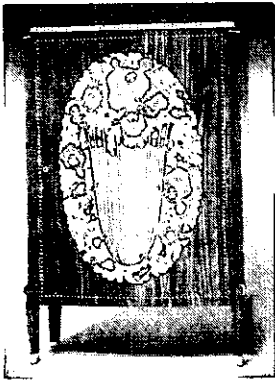


그림 38. 에밀 자크 룰만, 캐비닛, 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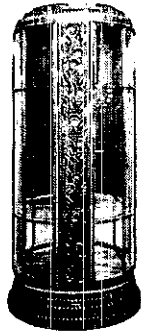


그림 39. 폴 폴로, 장식장, 1925

이러한 식물 모티브는 당시 뉴욕의 고층빌딩 장식에서도 보여진다. 체니 브라더즈 빌딩(Chenny Brothers Building(1925))의 철제문은 에드가 브란트(Edgar Brandt)의 작품으로 분수와 식물의 형태를 양식화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초기 아르데코 장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40) 이것은 그 이전 에드가 브란트가 1924~1925년에 프랑스에서 제작한 콘솔과 스크린(그림 41)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구에 묘사된 장식과 빌딩 문에 나타난 장식은 프랑스의 아르데코 양식이 미국 아르데코 건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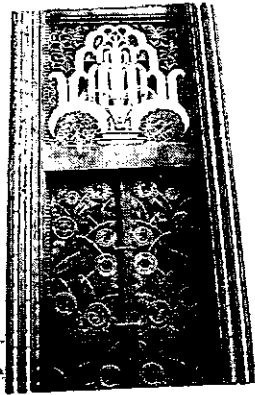


그림 40. 에드가 브란트, 체니 브라더즈 빌딩, 철제문, 1925



그림 41. 에드가 브란트, 스크린, 1924

자연적 모티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순한 동물과 식물의 묘사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묘사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정글을 묘사하여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드러내어 그들의 고조된 이국 세계의 호기심을 간접경험으로 느끼고자 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는 동시대의 화가 앙리 루소(Henri Rousseau)의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다.(그림42) 거대하고 환상적인 이국의 정글을 묘사한 그의 작품들 속에서 나타나는 선명한 꿈속의 재현과 리얼리즘은 매우 강력한 시각적 표현으로 자극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이러한 원시림의 묘사는 가스통 쉬스(Gaston Suisse)의 스크린(그림 43)과 같은 작품에서 나타난 묘사의 관계성에서 동시대의 동일한 관심사로서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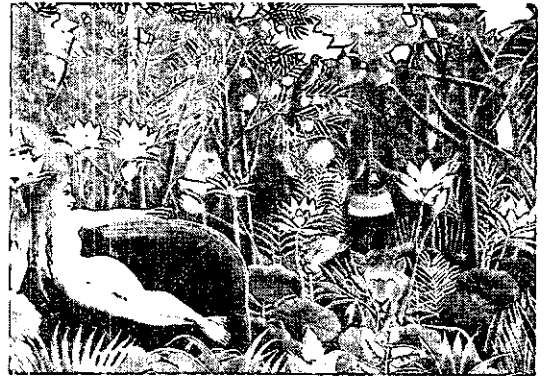


그림 42. 루소, <꿈>, 1910



그림 43. 가스통 쉬스, 스크린, 1928

3.3. 색채와 재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로부터 영감을 받은 아르데코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와 재료는 그만큼 다채롭고 풍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의 다양성 아래 구분되는 주된 흐름은 품위있는 화려함과 이국적 이미지의 연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가구의 광택 나는 표면처리와 이질적이면서도 혼하지 않은 재료들의 혼합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아르데코 가구의 대부분에서 보여지는 매끄러운 표면처리와 광택마감은 당시의 이집트미술과 러시아 발레단의 영향에서 연유한다. 수세기 동안 유럽디자인에 영향을 끼쳐왔던 이집트 미술은 1922년 투탄카멘왕(Tu-tanhamun)의 무덤발굴을 계기로 다시금 고대의 색채에 대한 부흥을 일으켰고 당시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주제로 부각된다. 희미하게 비치는 황금색을 상쇄시키는 험찬 청색과 붉은 색으로 된 가면(그림44)은 아르데코 디자이너들이 차용한 수많은 현혹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황금색, 청록색, 복숭아색과 같은 고대 색조에 대한 열광을 불러 일으켰다.(그림45) 또한 러시아로부터 온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Pavlovich Diaghilev) 발레단의 동양적이고 에로틱하며 그 자체가 이국풍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무희들의 안무, 선명한 색조들과 대담한 패턴들의 의상 등은 당시 프랑스의 예술가들을 사로잡았다.(그림46) 패션 디자이너 폴 쾨와레(Paul Poiret)는 이를 패션에 접목시켰고 피카소는 러시아발레단과 합류하여 무대를 디자인하였으며 큐비즘적인 환상극 'Parade'를 상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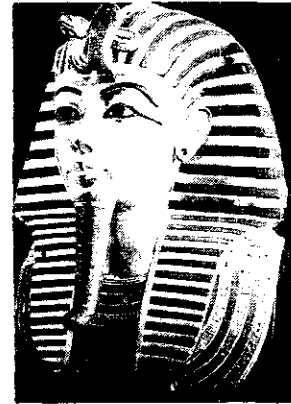


그림 44. 투타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가면.



그림 45. 피네점 1세의 사자의서
그림 46. 러시아 발레단의 무용수

이러한 영향은 아르데코 가구에 황금색, 청록색, 현란한 오렌지색, 복숭아색과 같은 특징적인 색채들을 부여하였으며 빛나는 금박과 은박, 옷칠과 같은 재료들의 사용으로 재현되었다. 특히 피에르 르그랭(Pierre Legrain)과 에일린 그레이(Eileen Gray), 장 뒤낭(Jean Dunand)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애용하였던 옷칠¹⁰⁾은 동양 미술의 영향

10) 프랑스 왕조시대부터 인기있었던 동양적인 옷칠작품들의 재유행은 192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에일린 그레이는 일본 북부지방인 Johoij에서 옷칠의 대가인 소가와라(Sougawara)를 알게되었고 1900년 파리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파리에 온 그와 함께 작업을 하게된다. 그 후 1910년에는 최초로 옷칠을 현대가구디자인에 활용하였으며, 몇 년후 장 뒤낭, 레옹 알베르 잘로(Leon Albert Jallot),와 같은 아르데코 가구디자이너들도 그들의 작품에 옷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 뒤낭은 전통적인 옷칠 사용법에서 벗어난 그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옷칠은 많은 시간과 정교함을 요하는 도포방법으로 인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량생산과 현대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산업적인 합성유약으로 대체되었다.

에 의한 것으로 그것의 강렬한 색상과 부드러운 촉감은 아르데코 가구의 우아한 조형감각을 한층 높여주었으며 가구를 예술작품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그림47,48) 표면에 광택을 내어 볼륨을 강조함과 동시에 형태를 부각시키는 표현방법은 조각에서는 브론즈의 사용으로 가능해진다. 1910년부터 재료, 형태, 색채의 관계에 몰두하여 많은 작업을 진행했던 콘스탄티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는 재료에서 발산되는 광채를 이용한 일련의 작품들을 제작하였다.(그림49) 앞서 주지했다시피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원시 미술적 요소와 단순화된 형태는 브론즈의 사용으로 또 다른 조형감각을 창출해내고 있다. 건축에서도 빛나는 색채를 이용하여 실내 및 건물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향은 두드러진다. 특히 미국에서 1920년~1930년에 걸쳐 전성기를 이룬 아르데코 스타일의 고층건물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르데코 양식의 장식적인 프리즈와 벽장식들은 건물의 정면에 부과되어 강한 시각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그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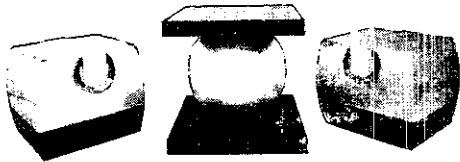


그림 47. 피에르 르그랭, 테이블과 스톨, 19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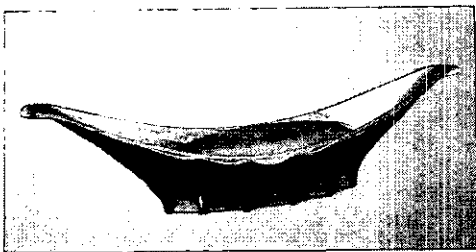


그림 48. 에일린 그레이, 카누소파, 1919



그림 49. 브랑쿠시, <포가니 양>, 브론즈, 1918.



그림 50. 록펠러 센터의 입구 장식, 1931.

또한 실내에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강철의 크롬도금, 황동 등의 재료와 그것의 가공기술발전에 의해서 빛나는 색채와 화려한 황금색조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그림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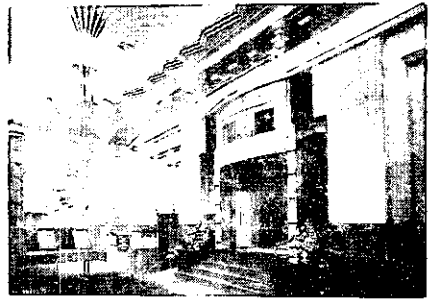


그림 51. 익스프레스 빌딩의 현관 홀, 1931

황금색조와 더불어 나타난 아르데코 가구의 원색적인 강렬한 색채는 우선적으로 야수파의 그림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야수파를 대표하는 화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회화(그림52)에서 보여지는 밝은 파랑과 초록, 노랑과 강렬한 적색의 대비는 아르데코 가구의 색채 배치와 일치한다.(그림53,54)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외벽을 원색적으로 착색한 경우가 종종 보여진다.(그림55)



그림 52. 앙리 마티스, <음악>,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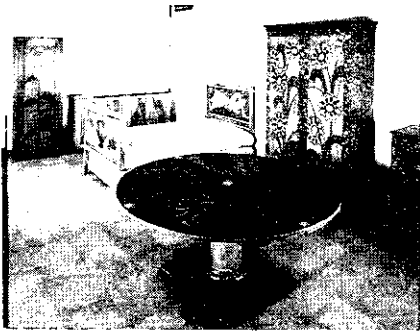


그림 53. 영국의 오메가공방, 침실셋트, 1912~18



그림 54. 에일린 그레이, 스크린,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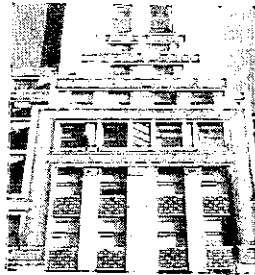


그림 55. 프렌치 빌딩의 외벽, 1927

이러한 아르데코 가구의 매력적이며 화려한 색채는 이국적이고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고도의 세

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흑단이나 암보니아와 같은 값비싼 목재에서부터 상아, 진주, 옥칠과 같은 이국적인 재료들, 그리고 금속 및 유리등의 현대적인 재료들이 훌륭하게 조화되었다. 흑단은 아르데코 최고의 목재로서, 그것의 진한 검은색 표면은 내재된 아름다움을 살려내기 위해 반복해서 다듬어졌으며 자단, 호두나무, 마호가니와 같은 따뜻한 색의 나무는 화려함을 갈망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¹¹⁾ 또한 양피지를 비롯한 동물의 가죽, 진주, 상아, 벨벳과 같은 가구제작에 사용되리라 예측하지 못한 재료들이 사용되었다.(그림57-59)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강철판이나 유리, 크롬, 니켈 등의 현대적인 재료들의 사용이 빈번해지는데 차가우면서도 맑고 경쾌하게 떨어지는 광택 나는 표면의 질감들은 아르데코 특유의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다.(그림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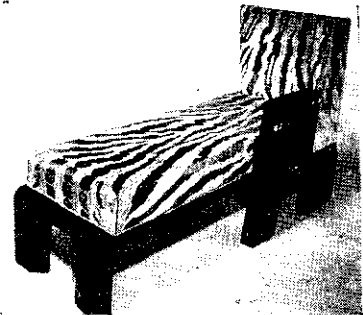


그림 56. 피에르 르그랭, 긴 의자, 얼룩말 가죽, 비치 우드에 옷칠,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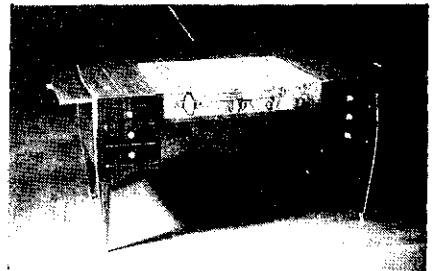


그림 57. 에밀 자크 룰만, 테이블, 마카사르 흑단, 상아, 뱀가죽, 1927.

11) Alastair Duncan, 「ART DECO」, Thames and Hudson, London, 1988.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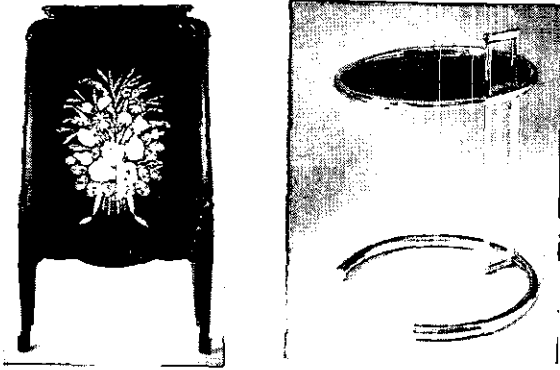


그림 58. 슈와 마르, 캐비넷, 은판, 조개, 흑단, 1927
 그림 59. 에일린 그레이, 테이블, 유리, 강철 파이프,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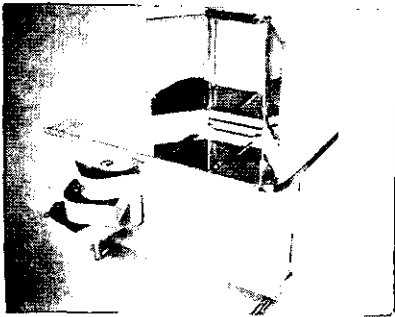


그림 60. 르네 에르브스트, 화장대, 거울, 강철에 크롬 도금. 1930.

4. 결 론

20세기초의 변화된 패러다임에 따른 인간 행동 양식의 변화는 자연히 그것에 기반을 둔 모든 재 예술의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가구 디자인 또한 회화와 조각, 건축조형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양식을 형성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아르데코 가구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을 동시대의 미술과 건축의 표현양상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아르데코 가구 디자인의 근원적 조형세계는 크게 추상성과 신비성, 상징성의 세가지 카테고리 특징 지워진다. 화려함과 우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상징화하였던 아르데코 가구디자인은 당시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금속적인 모더니즘 디자인과는 다른 초기 프렌치 모던으로서 우아한 실용주의로 정의될 수 있다. 아르데코의 우아한 장식적인 요소는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의 역사성의 표현과 장식성의 회복과정에서 응용되어지기도 한다. 또한 현대의 미니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적 원천을 제공해주고 있는 아르데코 가구 디자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아르데코 가구 디자인과 미술 및 건축의 표현양상

	가구	건축	회화 및 조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아하고 여성적인 곡선 • 단순화된 볼륨감 • 기하학적 형태 • 원시 조형의 재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형화된 구조 • 형태의 볼륨감 • 기하학적인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적, 분석적 재구성 • 원시미술로부터의 영감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모티브의 구현 • 자연 모티브의 단순화, 양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의 평면화 • 기하학적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적 기호의 추상화 • 이국적 성향의 표현
색채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의 색조 -황금색, 청록색.. • 이국적인 재료 • 표면의 광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성의 강조 • 고대의 색조 • 가공된 신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수파의 밝고 강렬한 색채 • 조각의 금속 광택 강조

5. 참고문헌

1. Patricia Bayer, ART DECO SOURCE BOOK, Wellfleet Press, London, 1988.
2. Victor Arwas, Art Deco,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80.
3. Alastair Duncan, Art Deco Furniture, Thames and Hudson, London, 1997.
4. Penny Sparke, Design Source Book, Macdonald, London, 1986.
5. Alastair Duncan, Art Deco, Thames & Hudson, London, 1988.
6. Alexander Von Vegesack의, Czech Cbis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Vitra Design Museum, New York, 1992.
7. Peter Gossel, Furniture Design, Koln, Taschen, 1993.
8. Yvonne Brunhammer의, PIERRE-EMILE LEGRAIN, Galerie JACQUES DE VOS, Paris, 1996.
9. Philippe Garner, EILEEN GRAY, TASCHEN, Koln, 1993.
10. William Rubin, 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94.
11. 鈴木博之 의, 建築20世紀 Part I, 新建築社, 東京, 1991.
12. Jean-Louis Ferrier, 김정화 역, 20세기 미술의 모험, 에이피 인터내셔널, 안양, 1990.
13. H.W.잭슨, 김윤수 외역,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서울, 1978.
14. Penny Sparke, 편집부 역, 현대디자인의 전개, 미진사, 서울, 1994.
15. 이일, 서양미술의 계보, API, 서울, 1992.
16. 베비스 힐리어, 조규화 역, 1900~1980, 20세기 양식, 수확사, 1993.